

‘별 중의 별’들 클래식 무대 뮤지컬·연극 고전의 재탄생



소프라노 조수미



피아니스트 조성진



피아니스트 에브게니 키신

2018년 공연·영화계에서는 어떤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까.

내년 클래식 음악계는 조성진, 키신 등 스타급 피아니스트들의 공연이 펼쳐지며 사이먼 래틀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도 내한한다. 뮤지컬에서는 12월 개막,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빌리 엘리어트’ 공연이 이어지며 영화계에서도 대작들이 눈길을 끈다.

◆클래식
‘피아니스트의 피아니스트’로 불리는 지메르만이 내년 10월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15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는 영국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지휘 에사 페카 살로넨)와 함께 벵스타인 교향곡 제2번 ‘불안의 시대’를 연주한다.

키신은 10월 2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네 번째 독주회를 연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도벤 피아노 소나타 29번 ‘함머클라비어’, 라흐마니노프 프렐류드 등을 연주한다.

2015년 쇼팽 콩쿠르 우승자 조성진의 무대도 이어진다. 조성진은 1월 전국 4개 도시 독주회를 시작으로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의 듀오 무대(9월 1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와의 협연(11월 1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도이치그라모폰 120주년 기념 갈라 콘서트(12월 6~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등의 무대에 오른다.

소프라노 조수미는 세계적 테너 로베르토 알라나와 함께 하는 ‘디바 & 디보 콘서트(5월 31일·세종문화회관 대극장)를 통해 관객들을 만난다.

지휘자 사이먼 래틀은 내년 10월 1일 롯데콘서트홀 런던 심포니와 함께 한국 관객을 만난다. 라벨의 ‘어미 거위’, 시벨리우스 교향곡 5번 등을 연주한다. 스타 여성 바이올리니스트인 재닌 안센이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한다.

파보 예르비는 올해 두 차례 한국을 방문한다. 우선 11월 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스위스 명문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와 함께 말러 교향곡 5번을 선보인다. 12월 19일 롯데콘서트홀에서는 도이치 캄페리히오닉과 함께 하며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이 협연자로 나서 모차르트의 마지막 바이올린 협주곡 5번을 연주한다.

마리스 안손스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은 11월 29~3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드보르자크 교향곡 7번과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 등을 연주한다. 앞서 독주회로 한국을 찾은 키신은 협연자로 다시 내한해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한다.

2018년 공연·영화계 전망

키신, 피아노 독주·협연 잇단 내한
한국의 ‘빌리’가 꾸민 뮤지컬 무대
독일 연출가의 ‘리처드 3세’ 공연
김주혁 유작 ‘홍부’ 등 극작가 다채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이끄는 뮌헨 필하모닉은 11월 22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내한 공연을 연다. 미국 최고 권위의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 우승한 피아니스트 선우 예권이 협연자로 무대에 오른다.

◆뮤지컬·연극
2010년 초연 이후 7년 만에 다시 공연 중인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는 2018년 5월 7일까지 디큐브아트센터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동명 영화 원작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역경에 맞서 싸우는 소년 ‘빌리’의 여정을 다룬 작품이다. 특히, 이번 재연을 위해 다섯 명의 소년들이 2년간의 트레이닝을 받아 한국의 ‘빌리’로 새롭게 무대에 서고 있다.

1월10일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는 뮤지컬 ‘안나 카레리나’가 개막한다. ‘안나’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재로 시대를 관통하는 가족과 사랑 등 인류 본연의 인간성에 대한 예술적 통찰을 담아낸 뮤지컬로 ‘안나’ 역에는 대한민국 뮤지컬계 최정상 여배우인 옥주현과 정선아가 출연한다.

뮤지컬 ‘명성황후’는 3월 세종문화회관에서 관객들을 만나며 일상에 갇힌 사람들에게 ‘꿈꾸는 순간’의 유쾌한 감동을 선사하는 창작 뮤지컬 ‘출연했던 사나이’(2월6

일~4월15일) 등도 대기 중이다.

연극 작품으로는 영화에서 활약해 온 배우 황정민이 주연을 맡은 셰익스피어 원작 ‘리처드 3세’가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무대에 오른다. ‘리처드 3세’는 6월 LG아트센터에서 독일의 스타 연출가 토마스 오스터마이어 버전으로도 공연될 예정이다.

4~5월에는 원로배우 최불암이 출연하는 ‘별이 빛나는 밤에’(가게)가 눈길을 끄며 스타 연출가 한태숙의 ‘엘레트라’도 눈길을 끈다.

하반기에는 허기시노 게이코의 베스트셀러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연극으로 초연되며 영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상인 올리비아상 최우수 코미디상을 받은 연극 ‘더 플레이 댓 고우즈 롱’(The Play That Goes Wrong),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도 무대에 오른다.

◆영화
새해 극장가 삼자림은 올해보다 한층 풍성할 전망이다. 제작비 100억 원대의 대작 상업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한국영화들이 개봉한다.

특히 대형 사극이 눈에 띄는데 당 태종 대군에 맞서 싸운 고구려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의 88일간 전투를 그린 ‘안시성’(김광식 감독)에는 순제작비 150억원이 투입됐다. 이승기 주연의 ‘공황’, 고(故) 김주혁의 유작 ‘홍부’, 현빈·장동권 주연의 ‘창궐’, 김명민이 출연한 ‘불교’, 김명민·오달수가 콤비를 이룬 ‘조선 명탐정 3’ 등 다양한 사극 블록버스터도 내년 개봉을 앞두고 있다.

남북 관계를 다룬 영화 3편도 간판을 내건다. ‘김사외 전’을 연출한 윤종빈 감독의 ‘공작’은 90년대 중반 북한 핵 개발을 둘러싼 남북 첩보전을 다룬다. 김병우 감독의 ‘PMC’는 판문점 지하 bunker 회담에서 펼쳐지는 전투 액션 물이며, 강형철 감독의 ‘스윙키즈’는 6·25전쟁 중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무대로 탭댄스에 빠진 북한군 로기수의 이야기를 다뤘다.

송강호·마동석 등 흥무로에서 열일 하는 배우들도 내년에 신작으로 돌아온다. 송강호는 1970년대 마약유통사건의 배후 이두삼의 실화를 다룬 ‘마약왕’에서 이두삼 역을 맡았다. 요즘 흥무로에서 가장 ‘핫한’ 배우 마동석은 ‘신과 함께2’와 팔씨름 영화 ‘ 챔피언’으로 관객을 찾았다.

내년에는 할리우드 영화의 공습도 거세다. 내년 1월 3일 ‘주만지 : 새로운 세계’에 이어 11일에는 맷 데이먼 주연의 ‘다운사이징’이 개봉한다. 이어 ‘메이즈 러너 3’(1월), ‘블랙팬서 2’(2월), ‘피사피 림’(3월), ‘어벤져스 : 인피니티 워’(4월), ‘엑스맨 : 뉴 뮤턴트’(4월), ‘데드 풀2’(5월), ‘쥬라기 월드 : 폴른 킹덤’(6월), ‘엔트렌 앤드 와 스프’(6월) 등이 상반기에 차례로 개봉한다. /연합뉴스



박진현의 문화카레

지난 2011년 경남 통영의 한적한 주택가에 작은 출판사가 동지를 들었다. 독립출판사 ‘남해의 봄날’이다. 일명 봉수골로 불리는 동네는 출판사 입지로는 썩 좋은 곳이 아니었지만 출판사는 3년 후 사무실 옆에 ‘봄날의 책방’까지 오픈했다. 사람 구경하기가 힘든 동네에 책방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봄날의 책방’은 통영의 문화명소로 자리잡았다.

모습을 드러내는, 더딘 작업이었지만 20여 년 동안 팬화에 전착했다. 강원도 흥천의 옥기상회에서부터 곡성의 곡성교통죽정정유소에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의 구멍가게 250곳을 찾아 캔버스에 담았다. 올해 3월 80곳의 구멍가게를 수록한 ‘동전 하나로도...’는 출간과 동시에 SNS를 타고 퍼지면서 영국 BBC에 소개될 정도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책은 출간 두 달 만에 6쇄를 찍었고, 프랑스와 일본에도 있던 건 ‘남해의 봄날’의 후광이 컸다. 출판사를 이끌고 있는 정은영(45) 대표는 ‘지방에서 출판사로 살

‘행복했던 서점의 날들’을 위하여

아름기 힘들다’는 주위의 우려에도 보란 듯이 5년간 25종의 목적인 책을 펴내 존재감을 과시했다.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 ‘작은 책방, 우리 책 좀 팝니다’, ‘동전 하나로도 행복했던 구멍가게의 날들’이 그녀의 손에서 탄생된 대표작이다.

그 중에서 ‘동전 하나로도...’는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책이다. 저자인 이미경씨는 미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결혼과 육아 등으로 한동안 붓을 놓아야 했다. 외환위기 여파로 모두가 힘들던 1997년 여름, 경기도 광주 퇴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이씨는 시골의 한적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해 질 녘 무렵, 동네 한 귀퉁이에서 만난 오래된 구멍가게는 그녀의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 그곳에서 이씨는 오랫동안 잊고 지낸 유년시절의 행복한 기억과 마주했기 때문이다.

의 가게는 편의점과 대형 마트에 밀려 시간 속으로 사라졌다.

‘남해의 봄날’이 펴낸 ‘동전 하나로도...’가 교보문고 선정 ‘2017 올해의 책 10’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이다. ‘동전 하나로도...’의 선전이 반가운 건 대형출판사가 아닌 독립출판이 이뤄낸 결실이기 때문이다. 순전히 작품성으로, 게다가 오프라인 서점을 기반으로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책이 아닐 수 없다.

그날 이후 이씨는 아이들이 잠든 시간에 펜으로 그림을 그렸다. 짧고 가는 선이 한 획 두 획 겹쳐져

사실 1인 출판과 독립서점은 올해 출판계의 키워드였다. 개정 도서정가제가 도입된 이후 자취를 감췄던 동네서점들이 하나 둘씩 되돌아 오면서 올해만 31개(매니플랜 ‘2017 독립서점 현황조사’)가 늘었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내년에는 책을 가까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동네서점이 우리 곁에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아이들도 동네서점에서 행복한 추억 하나쯤 가질 수 있도록.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합태선 광주국악협회 회장, 광주예총 예술대상

합태선(사진) 광주국악협회 회장이 2017 광주예총 예술문화상을 수상했다. 합 회장은 이러한 공로로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사무총장, 대통령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합 회장은 “예술대상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더 지역의 예술문화 발전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합시장은 (사한국악협회 광주광역시지회 제11대 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예총 예술문화대상을 수상했다. 합 회장은 이러한 공로로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사무총장, 대통령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h3>평택시 토지분양 (오픈)</h3> <p>삼성전자 - 120만평 LG전자 - 110만평 (미군기지 이전) (평택 항)</p> <p>■ 총 7필지 1필지(200평) x 평당 130만</p> <p>■ 건축 허가완료 토목,도로공사 완료</p> <p>■ 투자 최적합 - 미래 값어치 평당 300만 (기타 평택 투자물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1,413평) 매가 7억 2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53평) 매가 6억 3 평택시 서정동 (59평) 매가 9억 (건축허가 완료) 4 평택시 지산동 (1,350만) 매가 27억5천만 5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공장부지) (1,380평) 매가 8억2천 (서해안고속도로 5분) <p>010-6670-9800 010-7384-7800</p>	<h3>영광주택 매매</h3> <p>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p> <p>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완료</p> <p>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p> <p>직거래 010-6670-9800</p>	<h3>법률 경매</h3> <p>(주대신경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산구 우산동 (원룸빌딩) 토지 123평 건물 198평 방 14개 (월세700만 예상)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5억6천 2) 북구 우산동 (3층 상가주택) 토지 66평 건물 172평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3) 북구 양산동 (공장) 토지 1,105평 건물 1,200평 월세 2천500만 예상 감정가 40억 → 최저가 17억5천 4) 강진군 칠량면 (공장, 창고) 토지 1,600평 건물 673평 감정가 11억 → 최저가 3억6천 5) 나주 경현동 (상가주택) 토지 600평 건물 411평 금성산 산책로 길 감정가 17억7천 → 최저가 6억3천 6) 군산시 나운동 (사우나) 토지 132평 건물 334평 사우나 운영시 월수익 2천이상 예상 감정가 21억 → 최저가 5억 7) 동구 불로동 (8층상가빌딩) 토지 619평 건물 2116평 구시청 사거리 1분 (히딩크호텔) 감정가 88억 → 최저가 62억 8) 남구 노대동 (주택) 토지 74평 건물 31평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1억4천 9) 화순 도곡 (숙박시설) 토지 617평 건물 856평 도곡스파랜드 1분 감정가 26억5천 → 최저가 9억5천 10)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 토지 62평 건물 (전용) 99평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2억9천 11) 장성 북일면 (요양병원) 토지 33,659평 건물 1,505평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12) 북구신안동 (모텔) 토지 141평 건물 656평 광주역 2분 코너 감정가 18억 → 최저가 18억 <p>010-6670-9800 010-7384-7800</p>	<h3>경매교육</h3> <p>1) 기초이론반 (무료)</p> <p>▶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p> <p>2) 실전반</p> <p>▶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p> <p>3) 경매</p> <p>▶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p> <p>※공통 사무실 시설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무직 정직원 내근하실분 2. 자유 출퇴근 하실분 3. 공동사무실 시설분 <p>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p> <p>010-6670-9800</p>
--	---	---	---